2/26/17

설교 제목: 나는 욥과 같이 아무런 조건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욥기 1:1-22

(욥 1:1)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절관주] 렘 25:20, 애 4:21

(욥 1:2)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절관주] 욥 42:13

(욥 1:3) 그의 소유물은 양이 칠천 마리요 낙타가 삼천 마리요 소가 오백 겨리요 암나귀가 오백 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절관주] 욥 29:25, 삿 6:3

(욥 1:4)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욥 1:5)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 1:6)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절관주] 창 6:2, 욥 38:7, 대상 21:1, 슥 3:1

(욥 1:7)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절관주] 욥 1:9, 욥 2:2

(욥 1:8)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절관주] 민 12:7, 욥 42:7

(욥 1:9)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 1:10)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절관주] 욥 1:3, 딤전 6:5

(욥 1:11)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절관주] 암 9:5

(욥 1:12)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 1:13)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절관주]욥 1:4, 전 9:12

(욥 1:14)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욥 1:15)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절관주] 욥 6:19

(욥 1:16)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욥 1:17)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세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절관주] 창 11:28

(욥 1:18)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절관주] 욥 1:4, 욥 1:13

(욥 1:19)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지므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 1:20)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 1:21)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절관주] 전 5:15, 딤전 6:7, 삼상 2:7, 전 6:2

(욥 1:22)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절관주]시 74:22

지난 주에 저희 집에 불청객이 방문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 대뜸 '전지전능 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 어떻게 악이 그리고 고난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로운 사람들이 어째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어째서 세상에서 형통합니까?'하고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꼼짝없이 당하는가 봅니다.
하기사 동서고금을 통털어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많은 믿는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며 가슴에 품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바르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택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마침 이번 주일부터 욥기 말씀을 나누겠다고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었던 터이라 조리있게 답변을 해 돌려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욥기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당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신비한 고난에 대해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이라는 인물의 이름이 가진 본래의 의미는 '하늘의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가?' '핍박 당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욥기는 욥이 까닭 모를 핍박을 당하면서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단 말인가?'라는 실존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이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부당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부분은 1-5 절까지로 욥의 신앙과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6-12 절로 욥에 관해 하나님과 사탄과의 천상 회의가 나옵니다.
세 번째 부분은 13-22 절로 욥에게 주어진 재앙과 욥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먼저 첫 부분인 욥의 신앙과 삶에 대해 보겠습니다.

1) 욥은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욥 1:1)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정직하며 영적인 경건성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반드시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해야만 합니다.
욥은 도덕성과 윤리성, 영성, 경건성을 다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2) 욥은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욥 1:2)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욥 1:3) 그의 소유물은 양이 칠천 마리요 낙타가 삼천 마리요 소가 오백 겨리요 암나귀가 오백 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성경에서 일곱이라는 숫자와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입니다.
욥은 아들 일곱과 딸 셋 도합 열 명의 자녀를 두어 가정적으로도 다복했으며 물질적으로도 엄청난 부를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욥이 살던 시대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확실히는 모르지만 욥이 가진 재산을 소개하는데 화폐의 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가축의 수로 말하는 것을 보아서 아브라함 때나 그 이전의 족장 시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욥은 양 칠천 마리, 낙타 삼천 마리, 소 오백 마리, 암나귀 오백마리, 거기에다 수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었던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추앙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3) 욥은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욥 1:4)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욥 1:5)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자신의 경건성은 물론이거니와 자녀들의 경건성까지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아들들이 생일이 되면 각자의 집에 누이들까지 다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고 즐겼는데 그렇게 잔치를 치른 후이면 잔치 중 혹시라도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자녀들 각각의 혹시라도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 번제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악에서 떠난 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었습니다.

2. 두 번째 부분인 하나님과 사탄의 천상 회의 장면이 나옵니다..

(욥 1:6)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욥 1:7)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욥 1:8)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어느날 천상 회의 중 하나님께서 당신이 무한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욥을 사탄 앞에서 극찬하시며 사탄도 욥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즉각 이의를 제기합니다.

(욥 1:9)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 1:10)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욥 1:11)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복을 부어 주시고 지켜 주시니까 그러는 것이라고 참소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저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 주신 복 때문이지 아무런 까닭없이 아무 바라는 것이 없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욥을 한번 시험해 보면 알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참으로 도전이 되는 이슈입니다.
여러분은 솔직히 여지껏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거두시고 대신에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다 할 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지요?
이것이 바로 욥기가 우리를 향해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자신이 진정 아무 까닭없이, 아무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조건없이 순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기뻐해야 합니다.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23 편에서 한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바로 이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분 한 분으로 족하다고, 하나님외에 어떤 것도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그의 소유물을 가지고 욥을 시험해 볼 것을 허락하십니다.
(욥 1:12)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허락없이 사탄이 제 멋대로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낮도 밤도 다 주의 것입니다.

3. 세 번째 부분으로 욥의 고난과 고난에 대한 욥의 반응입니다.

욥은 뜬금없이 다음의 재앙들을 당하게 됩니다.
(욥 1:13)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욥 1:14)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욥 1:15)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욥 1:16)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욥 1:17)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세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욥 1:18)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욥 1:19)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지므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먼저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다음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습니다.
그 다음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나타나 갑자기 낙타를 빼앗았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자녀들이 큰 아들네 집에 모여 잔치를 벌이는데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 닥쳐 집 네 모퉁이를 치는 바람에 집이 무너져 다 죽었습니다.
욥이 당한 이 재앙은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고스란히 잃어 버린 총체적인 재앙이었습니다.

한 순간에 너무나도 어쳐구니 없는 재앙을 당한 욥의 반응입니다.

(욥 1:20)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 털을 밀었습니다.
당시 옷을 찢고 머리털이나 수염을 미는 행위는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전통적인 풍습이었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옷이 찢어지는 것과 같이 자기의 마음이 찢어진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며 머리털이나 수염을 미는 행위는 당한 재앙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상처가 깊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욥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고백을 올려 드립니다.

(욥 1:21)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 1:22)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자신에게 복 주시고 또 거두어 가시는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으며 그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기에 욥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욥은 비록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을 당하여 극한 슬픔에 빠진 가운데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하여 욥은 믿음에 대한 시험(test)에 무난히 합격을 하였습니다.

욥은 아무 바라는 것없이, 아무 조건없이, 울타리가 다 무너졌을 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욥이 가진 신앙은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순전한 신앙이었습니다.

욥은 순전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참소에 욥의 믿음에 대한 시험을 허락하시긴 했지만 본디부터 욥을 무한히 신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신뢰를 받아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욥이 한없이 부럽습니다.

저도 욥과 같이 하나님께 무한히 신뢰를 받는 하나님의 자랑스런 자녀라면 얼마나 좋을까요?